



무등산 서석대가 올 초 내린 서설에 덮여 은색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은 이제 세계인의 명산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강연균작 여름무등산(1988) 종이에 수채(57 x 77cm)

“여름 무등산의 짙은 초록은 웅장하면서도 중후한 맛을 준다. 수채물감으로 웅장한 느낌을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그렸다.”



나와 무등산 박선홍·무등산 보호단체협 고문

### 귀중한 자료 발굴·기록에 일평생 “국립공원 승격 감개무량 합니다”



1958년 무등산 개발조사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홍, 김용구, 김학준, 박인천, 김창호, 이달화, 이재수.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 박선홍과 무등산은 무엇일까? 평생 무등산과 살아왔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나, 박선홍에게 무등산은 삶 그 자체가 때문이다. 그래서 무등산과의 첫 인연부터 더듬어 보기로 했다.

충장로가 출생지였는데 문만 열면 무등산이 바로 보였다. 어린 시절 광주 건물 대부분이 단층이었고, 어느 집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무등산을 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알았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무등산 이야기는 자장가였다. 늦은 밤 무등산에 살던 호랑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던 기억이 아련하다.

초등학교 진학 후엔 소풍 때 학년별로 무등산에 오르는 순서가 있었다. 1학년부터 광주천, 태봉산(1967년 경양천 매립 때 사라짐), 중심사, 약사암, 원효사를 학년별로 올랐다. 6학년이 되면 정상을 오르는데, 무등산 정상을 오르는 형, 누나들의 늠름한 모습이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나와 무등산과의 실제 인연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중심사 인근으로 소풍을 다녀온 뒤부터다. 이후 틀

만 나면 무등산을 오르내렸다. 최근 누군가가 무등산을 몇 번이나 올랐느냐고 물기에, 산 높이가 1187m이니 그만쯤은 필듯하다고 말할 적도 있다. 20대 청년 시절의 추억은 무등산 산림보호 운동과 겹친다.

당시 무등산은 일제의 목재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박인천 당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1957년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나를 포함한 무등산개발 조사단을 꾸려 산림보호와 개발운동을 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광주시민들 사이에 휴일이면 무등산에 놀러가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너무나도 싶어 시민단체들과 무등산 취사금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무등산 정상 복원 운동, 공유화운동 등 무등산 보호와 관련된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왔다. 무등산에 관한 자료도 꾸준히 모아 ‘무등산’이란 책도 펴냈다. 무등산과 살아온 평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모습까지 보고하니, 이전 여한이 없다.

###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 남도의 어머니산 이제 세계를 품자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1> 연재에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에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비길 경승이 없으며, 특히 서석대(瑞石臺)는 마치 해금강(海金剛)의 한쪽을 산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무등산 3대 석경(石景)으로 불리는 입석대, 규봉암, 서석대의 절묘한 자태를 찬탄하면서 쓴 글이다. 하지만, 호남의 진산(鎭山)이자 신산(神山)인 무등산의 아름다움은 선인의 글솜씨를 빌리지 않더라도 예

과 5목9과15종의 포유류, 13목32과82종의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다. 또,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오며 송강 정철을 비롯해 무등산에 깃들었던 수많은 명사와 기인사들의 발자취가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 수많은 정자의 형태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중심, 약사, 원효, 규봉 등 무등산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찰들은 천년 여에 걸친 백성들의 지취와 원효, 의상, 지공, 도선, 나옹 등 고승들에 얽힌 숭한 전설, 그리고 소중한 문화재를 품어 안고 있기도 하다. 무등산에는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제봉 고경명을 비롯해 스물아홉 나이에 간신의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옥사한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등 국난을 이겨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오늘날에는 한국판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불리는 ‘무등산 땅 한 평 갖기’ 시민운동의 시발지로서,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이 ‘세계 속의 명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등산의 절경을 해치고 있는 공군부대 및 방송·통신시설 6곳의 이전이 대표적이다. 또,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과 무등산개발을 둘러싼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도심 속 국립공원’으로써 예방·의향을 상징하는 무등산의 관리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도 현안이다.

이제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립공원 무등산이 세계속의 명산이 되려면 단순히 생태환경을 보존·보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웅장한 숲과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무등산을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도민들의 끊임없는 무등산 사랑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산세 완만하고 물은 맑고 깊어

## 희귀 동식물·경관 뛰어난 명산

## “숲·문화재 활용 문화콘텐츠 창출”

부터 정령이 나 있다. 무등산은 산줄기와 골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커다란 둔덕같이 완만한 산세(山勢)를 지니고 있는데다 맑고 깊은 물을 품고 있어 광주·전남의 젖줄 역할을 해왔다. 또, 정상 천왕봉(1187m)을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기묘묘한 암석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어 남도민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처럼 까마득한 옛날부터 남도민의 어머니산으로 자리매김해 온 무등산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호남인의 산, 한국인의 산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산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종전까지는 ‘도립공원’이라는 구분에 가로막혀 진면목을 감춰왔지만, 실제 무등산은 1144과 1050여 종의 식물

광주일보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무등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1주년을 맞아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무등산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분기) ▲‘무등산 지킴이상’을 제정해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무등산 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유·청소년 숲 체험 및 중장년층을 위한 ‘무등산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광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집중 시리즈를 통해 무등산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선진국의 모범적인 국립공원 관리 실태 등을 통해 가장 무등산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지면에는 지역민과 무등산의 독특한 인연을 담은 ‘나와 무등산’이 게재되며, 무등산의 시계를 그린 지역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